

한미, 경제·안보 강화…공급망 안정화 등 모색

워싱턴서 '고위급 협의회'…외교당국 포괄적 협력 논의 美, 12일 韓 등 7개국과 中 의존도 낮추기 AI 회의 개최

한미 외교당국이 10일(현지시간) 한미 (SED)를 개최했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체널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양 차관은 집단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불공정과 비(非) 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간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에서도 헬버그 차관이 이런 입장은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헬버그 차관 주재로 오는

12일 한국 등 7개 유사 입장국과 인공지능 (AI) 분야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AI 관련 분야에서 힘을 합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양 차관은 분쟁 지역의 경제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 지지 차원에서 이론 역사적인 성과와 관련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을 언급하고서 이런 분쟁 지역 재건을 한국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양 차관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해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서 대형 유조선 나포

"제재 대상 원유 수송"…양국간 무력 충돌 위기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이어가고 막아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등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어난 아래적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물음엔 "우리가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자신의 엑스(X·엣 트위터)에 "오늘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해안경비대는 전쟁부(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베네수엘라와 이란으로부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했던 원유 유조선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유조선 억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막아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이 나라 인근 카리브해에 포드 항모 전단 등을 배치하며 양국간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차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아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기운데)가 11일 새벽 노르웨이 오슬로의 그랜드 호텔 앞에 모인 지지자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있다. 마차도는 땀이 대리 수상한 지 몇 시간 후 오슬로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